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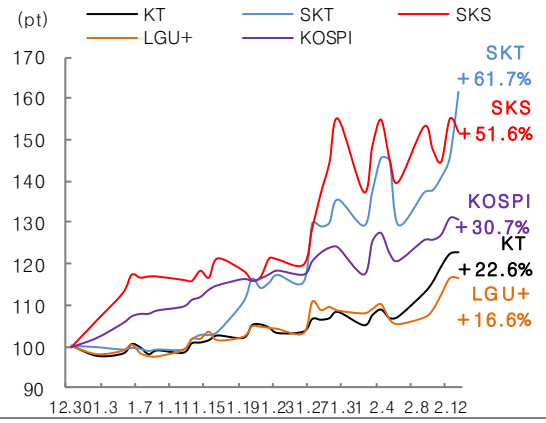
기업	25/12/30	02/06	02/13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69,200	86,500	▲ 33,000	▲ 61.7%	▲ 17,300	▲ 25.0%	3,320	3.8	
SK스퀘어 (402340)	368,000	514,000	558,000	▲ 190,000	▲ 51.6%	▲ 44,000	▲ 8.6%			
KT (030200)	52,600	56,300	64,500	▲ 11,900	▲ 22.6%	▲ 8,200	▲ 14.6%	2,600	4.0	
LGU+ (032640)	14,720	15,510	17,170	▲ 2,450	▲ 16.6%	▲ 1,660	▲ 10.7%	700	4.1	
KOSPI	4,214.2	5,089.1	5,507.0	▲ 1,292.8	▲ 30.7%	▲ 417.9	▲ 8.2%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어느새 지수를 따라잡았습니다.**
- 통신 주간 +18.0%, KOSPI +8.2%. YTD 통신 +35.5%, 지수 +30.7%. 주간 통신업 급등하면서 YTD 지수 수익률 상회
- 이번 주도 SKT가 주도주 역할. 주간 +25.0% 상승. KT도 +14.6% 상승하면서 조용한 상승세 형성. SKT는 21년 분할 이후 최고가, KT는 02년 이후 최고가 이면서 합병 KT 줄범 후 ATH, LGU+도 18년 이후 최고가
- 통신업 상승의 배경은, 25년 하반기 주가 약세의 원인이었던 해킹 이슈 마무리, 26년 실적 정상화, KT/LGU+ 분리과세 및 SKT 감액배당 등 3사 모두 비과세 배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수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순환매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
- 통신의 비중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실적, 주주환원,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T를 최선호주로 제시. 5G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4Q19 실적발표(20.2월) 이후 누적 수익률은 KT가 +153%로 최근 급등한 SKT 및 25.6월부터 급등한 지수 대비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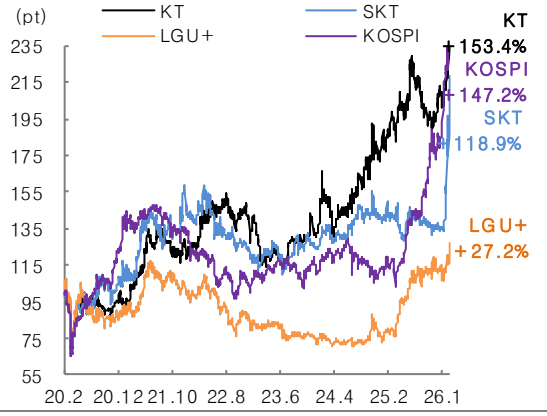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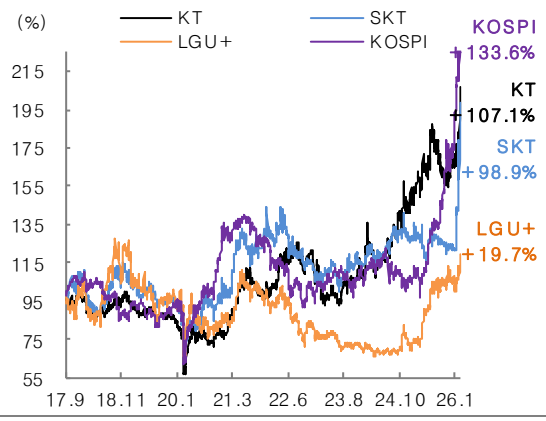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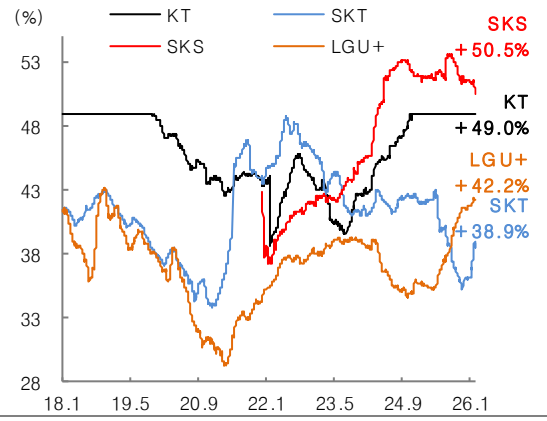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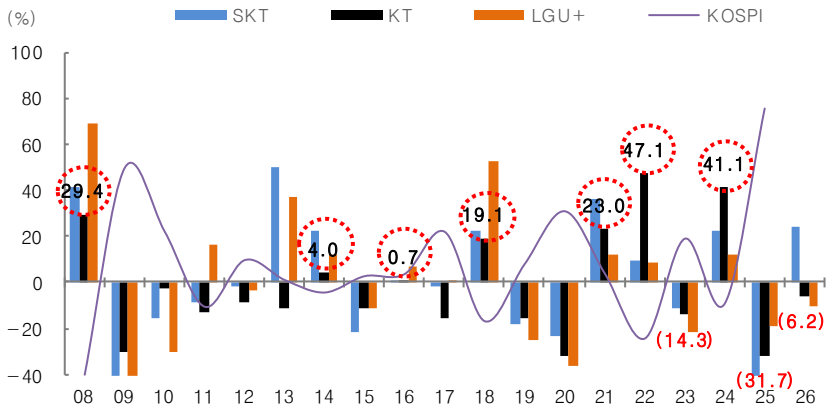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1.7%(23.7%), KT +22.6%(-6.2%), LGU+ 16.6%(-10.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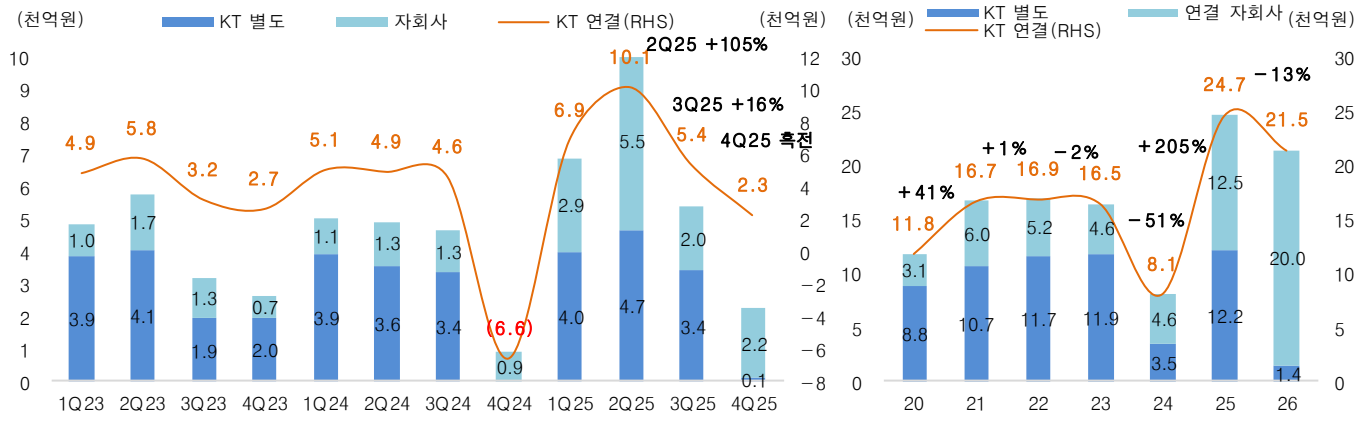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61.7	22.6	16.6	30.7	23.7	(6.2)	(10.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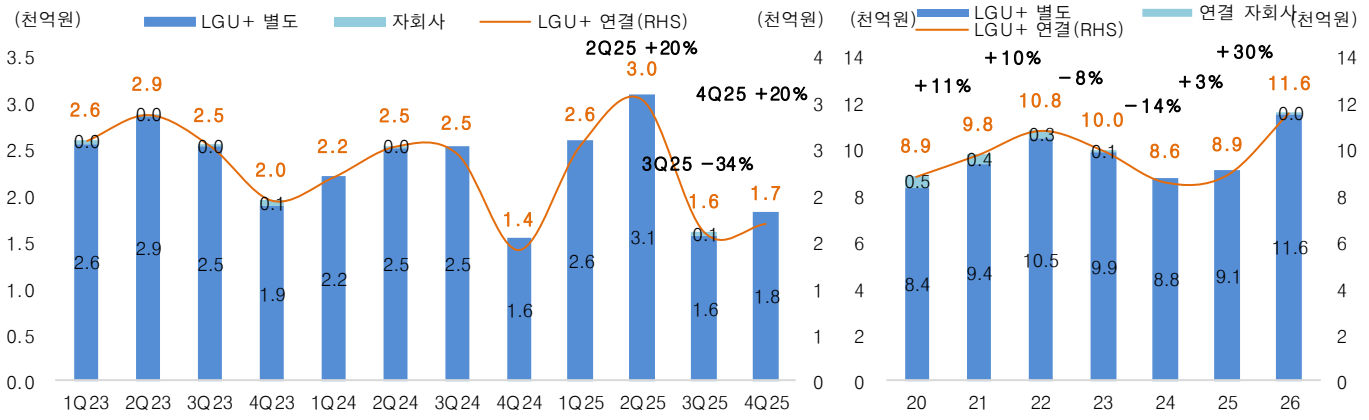
3. 4Q25 Review

KT OP 4Q25 2.3천억원(흑전 yoy), 25년 2.5조원(+205% yoy), 26E 2.1조원(-13%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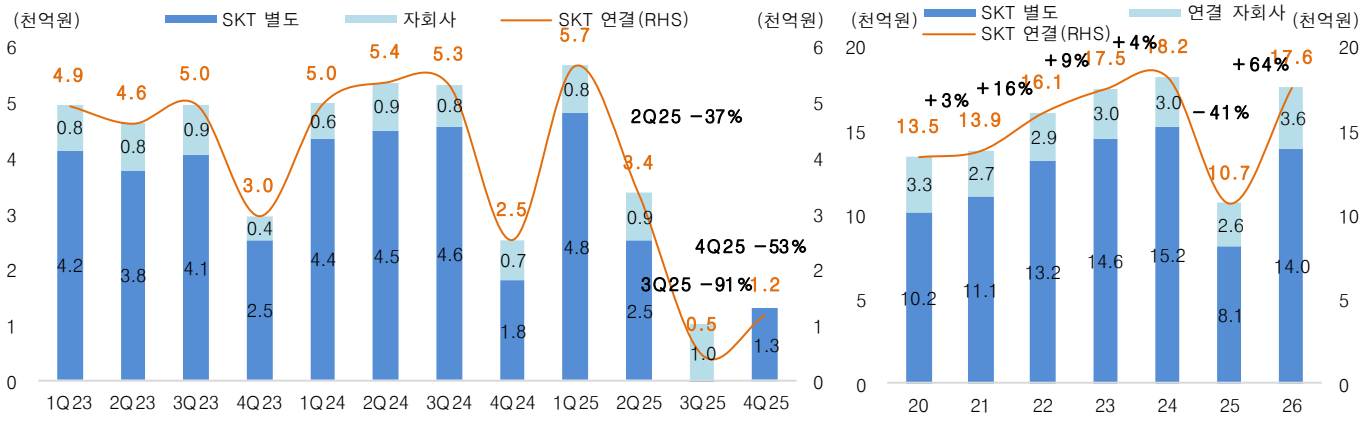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U+ 4Q25 OP 1.7천억원(+20% yoy), 25년 OP 8.9천억원(+3% yoy), 26E OP 1.16조원(+30% yoy) 전망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T 4Q25 OP 1.2천억원(-53% yoy), 25년 OP 1.1조원(-41% yoy), 26E OP 1.8조원(+64%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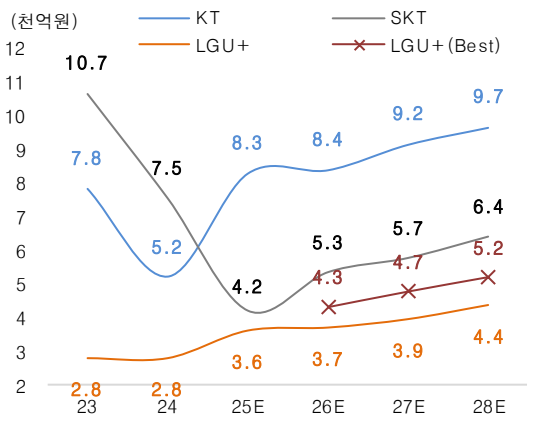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5G SA 워킹그룹 발족, KT 사외이사 교체, KT AI 송수신 시연, LGU+ 네트워크 자율화, SKT 유심 예약 종료	
산업 5G SA 워킹그룹 발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규격 전환을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발족. 기술/제도/혁신서비스 논의 구심점 형성. 5G SA 의무 전환 시점을 앞두고 정책 조율과 산업 협력 필요성 부각 2.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달 중 통신 3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출범 계획. 5G SA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 목적 3. 워킹그룹은 연말까지 통신 3사의 5G SA 전환 의무화에 대응하는 협의체 성격.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전파정책국 중심 태스크포스 구성과 민관 협업 구조 4.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따라 SKT와 LGU+는 망 구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전환 준비 단계. 이미 5G SA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는 비교 기준 역할 5. 의제는 서비스 모델 발굴 망중립성 예외 통화품질 평가 방식 등 다각적 쟁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산업용 서비스와 공공 환경 적용 가능성 검토 6. 워킹그룹은 국내 환경에 맞는 5G SA 활용 모델과 제도 정비 방안 도출 목표. 이용자 체감 서비스와 안정적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
긍정적	▪ 5G는 19.4월 상용화 이후 끊임없이 품질 논란에 시달림. 26년 현재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처음 제시했던 5G 요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 ▪ 5G-SA 및 5G-Advanced를 통해 5G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5G 시대에 맞는 새로운 BM들을 발굴해야, 30년 예정된 6G 상용화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KT KT 사외이사 교체	1. KT 이사회가 사익 추구와 셀프 연임 논란 속에서 임기 만료 사외이사 교체 결정. 전원 재선임 관행 회피를 통한 부분 쇄신 시도 2. 10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상정 사외이사 후보 3인 확정 결과 발표. 임기 만료 대상 교체로, 형식적 전원 연임 구조 차단 3. 업계는 일부 교체를 두고 진일보 평가와 함께 실효성 검증 필요성 병존 인식. 분산형 교체 구조 자체는 연속성과 자문 기능 측면에서 합리적 접근 평가 4. 다만 교체 범위가 임기 만료 이사에 한정된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에는 한계 지적. 로펌 출신 이사 연임과 신규 진입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 제기 5. 노조 반발은 지속되며 제2노조 새노조와 제1노조 모두 이사회 전면 쇄신 요구. 법데기 개혁과 면피성 조치 가능성에 대한 감시 기조 유지 6.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전환과 사외이사 평가제 도입 추진이 향후 변수. 이사회 규정 개정과 독립기관 조사 여부가 거버넌스 신뢰도 분수령
긍정적	▪ KT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 그 동안 다양한 변화를 통해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장 선진화된 이사회로 거듭나는 중
KT KT AI 송수신 시연	1. KT가 글로벌 무선통신 선도 기업과 협력해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전환 국면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 가능성 2. 이번 기술은 국제 표준화 기구 3GPP의 Release-20에서 논의 중인 AI 기반 채널 상태 정보 압축 기술 적용. 단말과 기지국간 무선 환경 학습을 통한 정보 정확도를 강화하는 구조 3. 시연에는 퀄컴 차세대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과 로데슈바르즈 AI 기지국 시스템 연동 환경이 사용. 단말과 기지국 양단 AI 적용을 통한 실증 구성 4. KT는 5G 네트워크 운용 경험과 기지국 설정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환경 최적화된 AI 모델 적용. 실험 결과, 채널 상태 정보 정확도 향상과 다운링크 성능 약 50퍼센트 개선 확인 5. 해당 성과는 AI가 무선 성능 자체를 실질적으로 개선 가능함을 상용 환경에서 입증. 3GPP 표준 기반 AI RAN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 검증 6. KT는 이번 시연을 계기로 6G 시대 대응 AI 무선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 강화 전략 제시. 글로벌 빅테크와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주도 전략 지속 추진
긍정적	▪ 3GPP의 Release 20은 5G 연구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AI 기술이 접목되고 6G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작업 ▪ 6G 연구가 본격화되는 Release 21도 26~27년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기반한 시연에 성공한 것은, 5G-Advanced 뿐만 아니라 6G에 한발짝 더 나아갔다는 의미
LGU+ LGU+ 네트워크 자율화	1. LGU+가 인공지능을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 적용하며 통신 품질 경쟁축을 자율화 단계로 상향. 장애 대응, 트래픽 제어, 통신국사 관리까지 AI 판단 중심 운영 전략 본격화 2. LGU+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기자간담회에서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 운영 사례 공개.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분석 판단 수행을 일괄 담당하는 구조 전환이 목표 3. 핵심 플랫폼은 자율 운영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AION으로 장애 감지, 품질 분석, 트래픽 예측 통합 관리 기능. 상용망 적용 이후 모바일 품질 불만 70%, 홈 서비스 불만 56% 감소 성과 4. AI 에이전트는 24시간 감시 체계로 이상 신호 탐지와 영향 범위 분석 수행. 대규모 행사 환경에서도 자연어 입력 기반 트래픽 예측과 기지국 제어 자동 실행 5. 통신국사 운영에는 디지털 트윈과 로봇 기술 결합 적용. 초거대 AI 엑사원 기반 자율주행 로봇 U-BOT 순찰로 안전성 제고와 장애 대응 속도 개선 6. TM포럼 네트워크 자동화 성숙도 평가에서 Access 장애관리 영역 레벨 3.8 획득. 오는 3월 MWC 2026에서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공개 계획
긍정적	▪ LGU+의 엑사원 기반 익시오는 다양한 성능 평가에서 우수한 AI로 인정받는 기술 ▪ LGU+는 LG 그룹사의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가는 중. 아직 통신사들이 AI 관련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상용화에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SKT SKT 유심 예약 종료	1. SKT가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운영을 약 10개월 만에 종료. 유심 공급 안정화에 따른 별도 사전 예약 창구 불필요 판단 2. 유심 무료 교체 신청 사이트는 28일부로 운영 종료 예정. 온라인 예약 창구는 사라지지만 전국 T월드 매장 방문 교체는 지속 3. 고객은 신분증과 교체 대상 기기를 지참해 매장 방문 후 무상 교체 신청 가능.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연동 기기 포함 절차 유지 4. SKT는 예약 없이도 매장에서 원활한 교체가 가능한 환경 조성. 무상 교체 종료 시점은 미정이며 1회에 한해 무료 교체 지속 방침 5. 해당 정책은 지난해 4월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도입된 후속 조치 일환. 초기 수요 급증에 대응해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병행 운영 6. 현재는 매장 혼잡 완화와 공급 안정 확보로 운영 체계 정상화 단계. 유심 교체 정책은 유지하되 관리 방식 간소화
중립적	▪ 유심 무료 교체가 마무리되면 선반영했던 비용의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25년에 사상 초유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심 교체 외에도 다양한 보안 강화 및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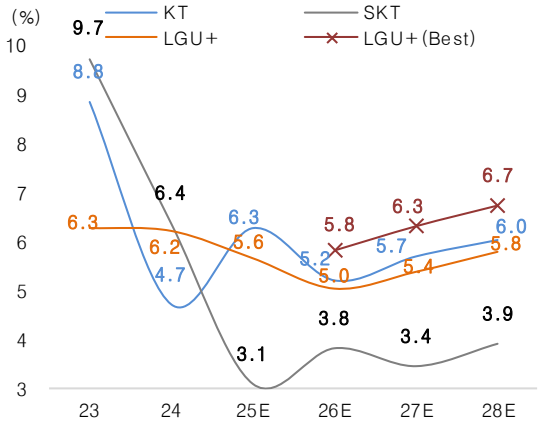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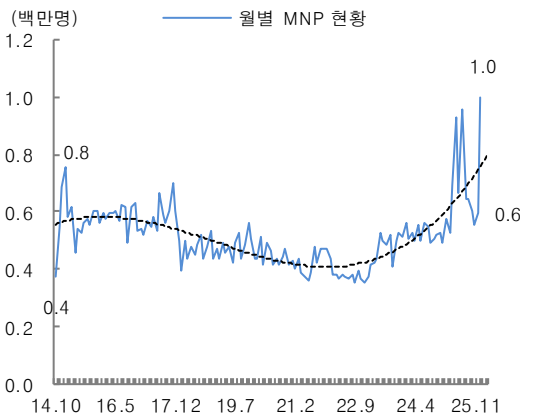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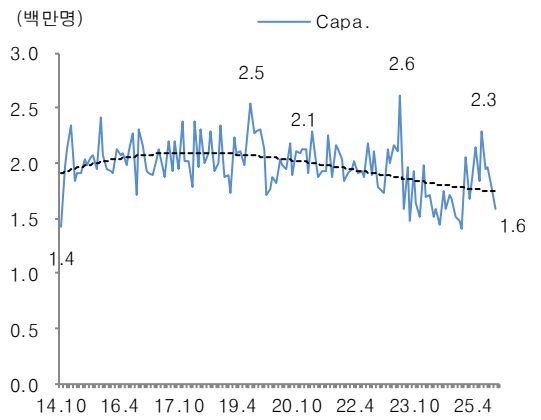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1월) 999천명, +406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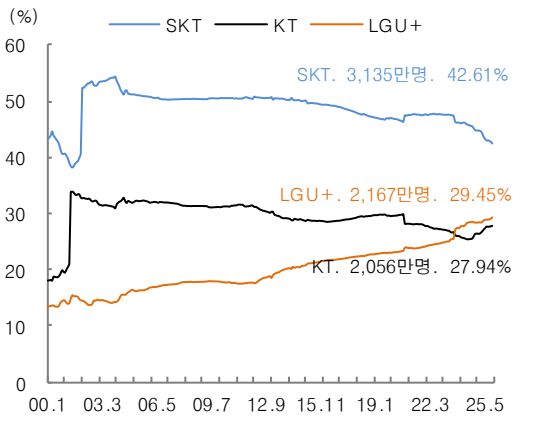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59만명(25.11월). 24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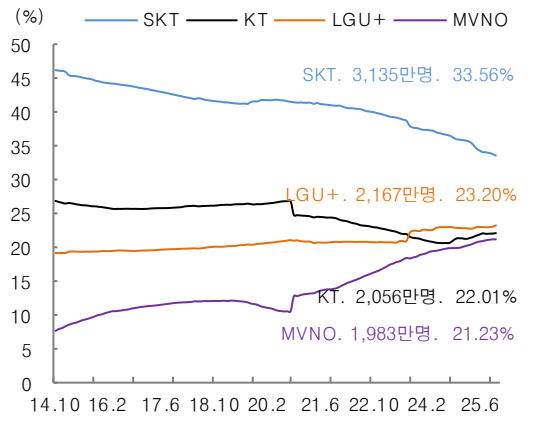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1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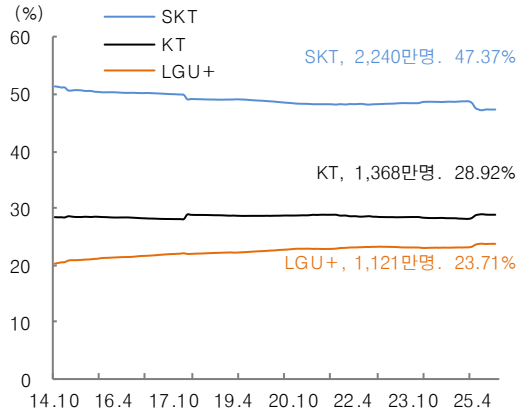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1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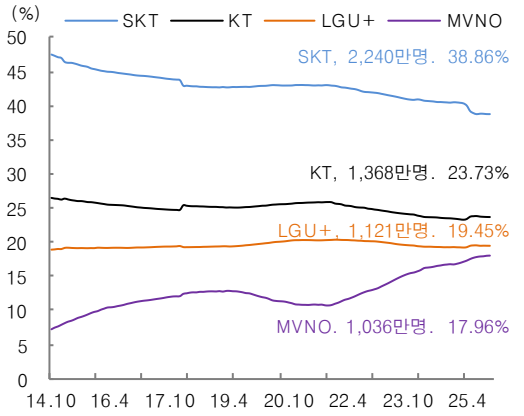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1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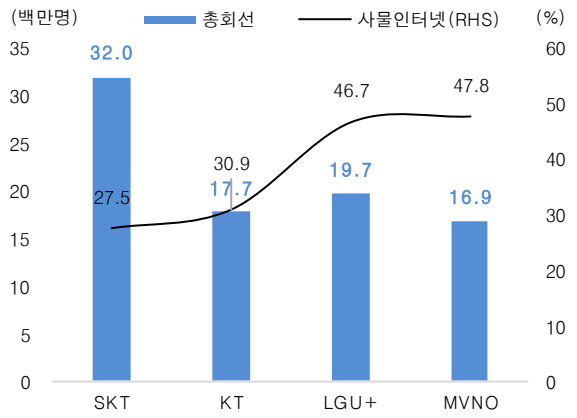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1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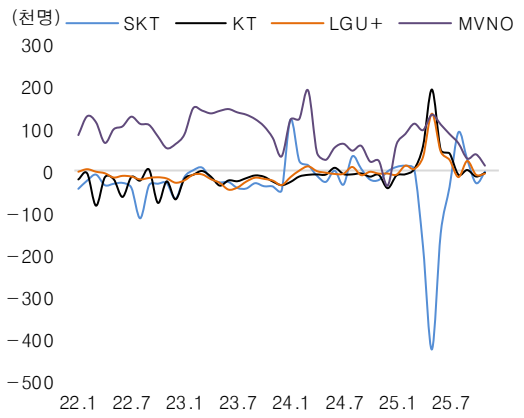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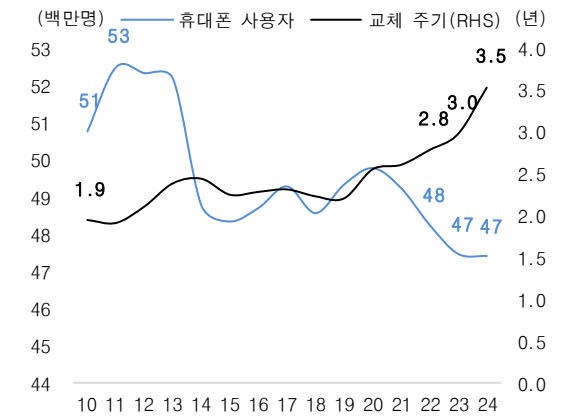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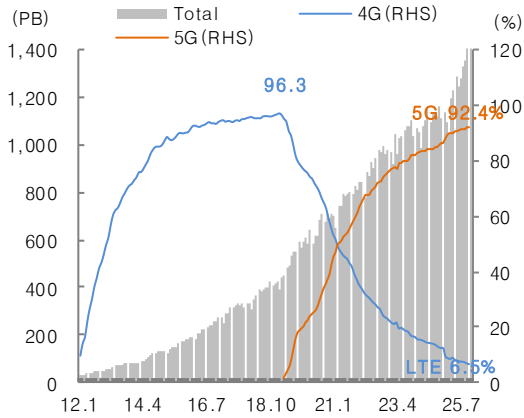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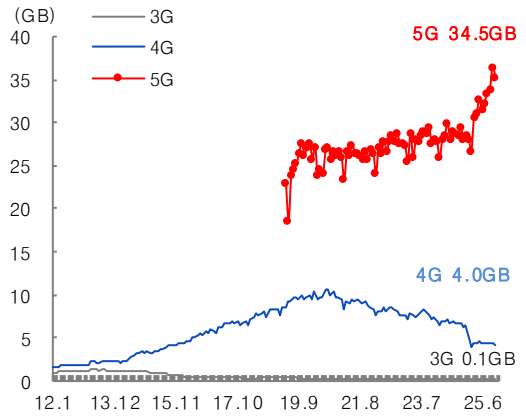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4%(2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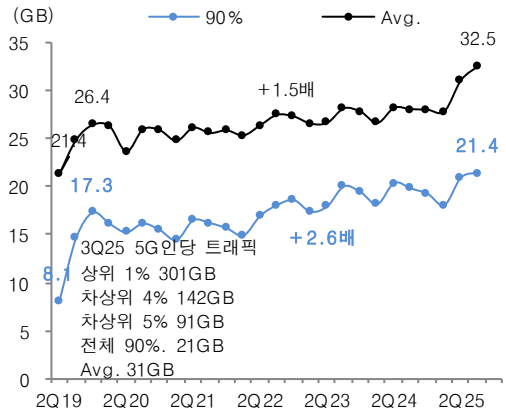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4.5GB(25.11월), -1,135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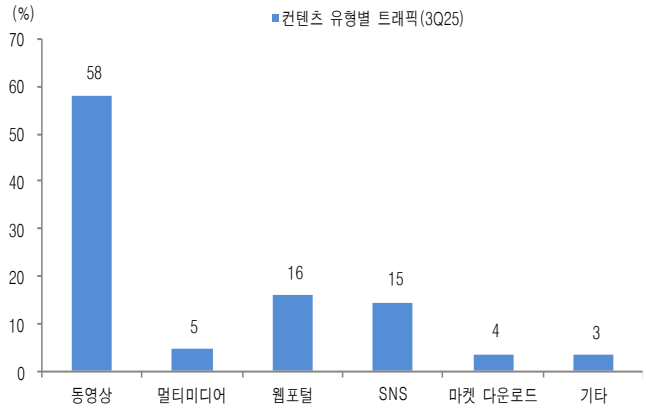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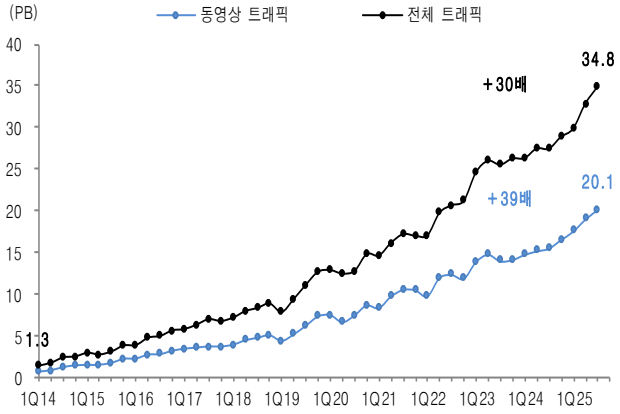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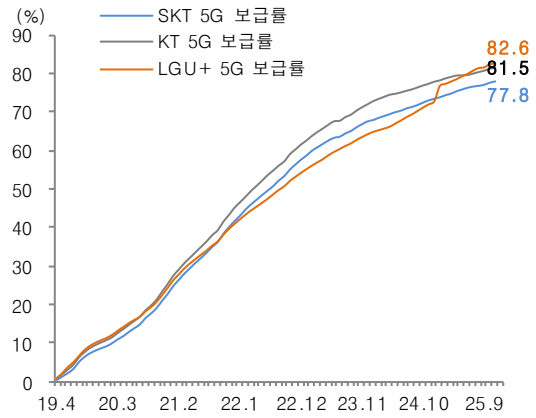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3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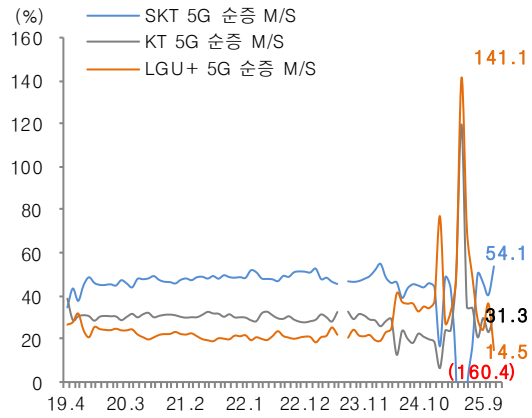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0%(2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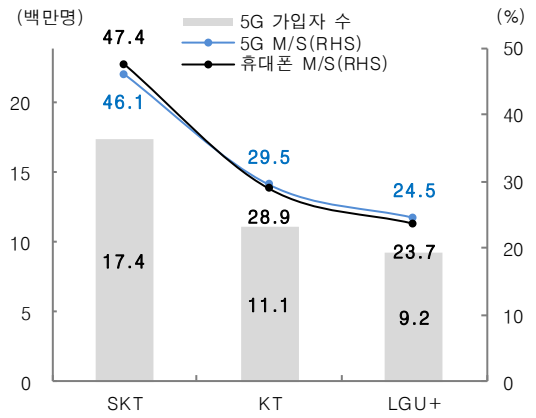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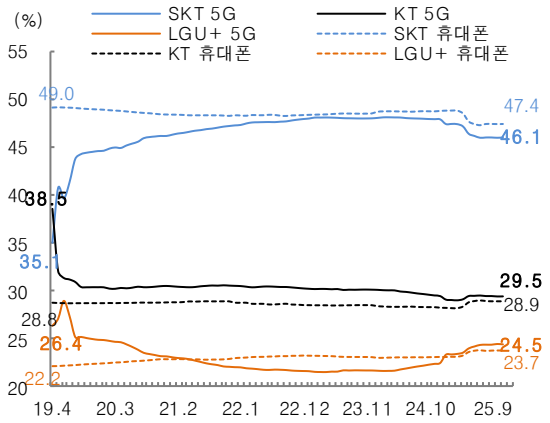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1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1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